

이승준 02) 2009-7088  
leesj@leading.co.kr

4일 버락 오바마 대선후보의 당선에 유력한 가운데 차기 대통령이 시장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인하여 상승 마감.

장중 330p까지 상승했던 블루칩 중심의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305.4p(3.3%) 오른 9,625.28로 장을 마감. 7.6% 상승한 GE를 필두로 1개 종목을 제외한 모든 다우지수 종목들이 상승 마감.

S&P500지수는 39.44p(4.1%) 오르며 1,005.74를 기록, 10월 13일 이후 처음으로 1,000선을 회복.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53.79p(3.12%) 상승한 1,780.12로 마감.

미국의 제44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앞두고 뉴욕증시는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시장심리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로 상승. 신용시장의 경색 또한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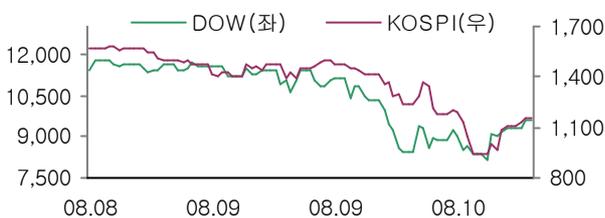
이날 3개월만기 리보금리는 전일보다 15bp 하락한 2.71%를 나타내며 17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.

뉴욕증시가 급등세를 나타내고 신용시장 여건이 개선되며 캐리트레이드가 강화되며 달러화가 하락. 뉴욕유가는 달러가 유로대비 3% 이상 급락함에 따라 폭등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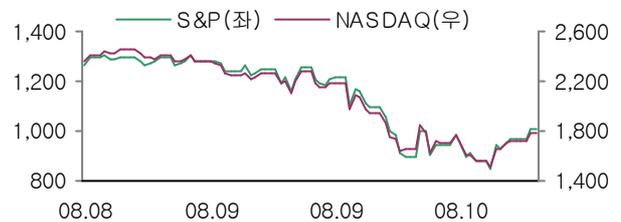
12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(WTI) 가격은 6.62달러 오른 70.53달러에 마감.

미국 시장 주요 지표(pt, %)

지수	종가	1일	5일	10일	1개월	3개월	12개월
DOW(좌)	9,625.28	3.28	6.18	6.55	-6.78	-14.70	-28.93
S&P(좌)	1,005.75	4.08	6.94	5.31	-8.50	-19.48	-33.05
NASDAQ(우)	1,780.12	3.12	7.92	4.92	-8.59	-22.11	-36.31



자료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

자료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\* 상기 게재된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, 이와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은 이용자 개인의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.  
\* 본 자료는 발간일 이전 사전 자료로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 
\*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